



탈규제 세계경제하의 노동

국제금융노련 제29차 세계총회 초청토론

이번 IMF 세계총회에 연구소 이원보 부소장이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특별 초청되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노동운동의 세계적인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초청토론에서 각국 대표들은 '세계화'를 장미빛 꿈이 아니라 일그러지고 있는 초상으로 규정했다.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국 제금융노련(IMF) 제29차 세계총회의 중심의제는 '21세기를 향한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제금융노련은 선진 자본주의권, 신흥 공업국권, 최빈국지역에서 4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회 진행도중에 '탈규제 세계경제하의 노동'이라는 주제의 패널토의를 가졌다. 4명의 전문가는 제프 포우(Jeff Faux, 워싱턴 경제정책연구소 소장), 루돌프 쿠다(Rudolf Kuda, 독일금융노조 경제국장

및 특별계획국 대표), 응유루 리툼바(Ngyuru Lipumba, 핀란드 세계발전경제조사연구소 선임연구원) 그리고 필자 등이었다. 토론회는 캘리포니아대학교 사회문화연구소 대표인 하알리 샤이킨(Harley Shaikin)의 사회로 먼저 미국과 유럽지역의 상황에 대한 기초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 응답을 끝낸 후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기초발표와 질의 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기초발표와 질의 응답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제프 포우(Jeff Fauxs, 워싱턴 경제정책연구소 소장)

미국에서의 탈규제 '세계화'의 신화는 '노조 힘의 약화, 기업의 세금감축, 정부 부문의 민영화'를 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레이건행정부 이후 강력히 추진된 세계화전략은 최근 미국경제의 활황으로 성공을 거둔 것으로 기업층에 의해 자화자찬되고 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강화되었고 고용이 대량으로 창출되었으며 노동자가게의 소득도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총량적인 통계상의 지표일 뿐이며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 신속한 고용창출은 1950년대 이후 70년대 까지에도 있었던 현상이며 최근의 새로운 경향은 아니다. 또한 고용은 소매업이나 서비스업종의 호황을 반영하여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제조업-특히 금속산업-에서는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도 증가하지 않았으며 생활조건도 개선되지 않았고 미국은 의료보험 없는 나라로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자본가들은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감옥까지도 민간에 임대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은 자유경쟁에 맡겨야 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부나 노동조합의 어떤 제약도 배제되어야 한다는 미국식 모델은 미국경제가 회복국면을 보이면서 더욱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식 모델은 어떤 나라에서는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 예컨대 멕시코는 NAFTA에 가맹한 이상 미국식 모델을 거

부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멕시코 경제는 지역경제불력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화려한 꿈과는 정반대로 붕괴의 위협에 직면하였다. 세계화라는 이름이래 통용되고 있는 미국식 모델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원천무절한 유연화이다. 이 명제가 인정되는 한 노동조합 기본권이나 사회보장, 인권 등은 희생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식 모델은 화려하게 치장된 헐리우드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루돌프 쿠다(Rudolf Kuda, 독일금속노조 경제국장 및 특별계획국 대표)

세계화시대, 유럽에서의 상황은 재분배 정책과 신보수주의자간의 투쟁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성장은 유럽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런데도 연간 소득은 양측이 비슷했다. 1985~1995년 사이에 미국의 인건비는 58%가 증가하고 노동력은 4% 감소한데 비해 유럽지역의 인건비는 28% 증가하였고, 고용은 24%가 감소하였다. 미국의 성장을 지탱했던 생산성 모델의 단점은 1985년 이후 10년간 유럽이 6천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한데 반해 엄청난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데서 드러난다. 더우기 미국에서는 노동력의 이중구조가 온존되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빈곤해지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최근에는 더욱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식 모델은 유럽에서는 통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배워야 할 정도 없다. 그렇다면 유럽식 모델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정부조치의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에 대한 보다 긴밀한 협력에서 찾아야 하며 부분적으로는 각국이 주간노동시간을 고르게 단축함으로써 고용을 증대시키는 데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은 한국을 경제개발모델로 삼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와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에서의 세계화전략은 정부와 자본에 의한 임금억제정책, 신경영전략, 공기업의 민영화 및 규제완화, 해외투자 확대, 노동법 개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96년말~97년초 폭발한 한국 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은 노동법 개혁에 대한 저항과 함께 노동자의 희생을 조건으로 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전략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었다. 이제 한국 노동운동은 총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도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전략 앞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외자유치에 의한 경제개발은 아시아 지역의 모든 나라에 공통된 것이며 이를 위해 노골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단결의 자유와 인권신장은 철저히 봉쇄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신흥공업국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세계화는 국내의 거대한 독점자본과 다국적기업의 무차별한 이윤추구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이며 '자본에게는 무한대의 자유를,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엄

격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위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노동조합운동은 기업별노조의 극복과 산업별노조로의 전환을 통한 계급적 단결의 추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 노동운동의 통일 등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제 아시아 각국 노동조합운동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겨야만 당신들도 살 수 있다는 자본측의 달콤한 유혹을 과감히 떨쳐 내야 하고 정치적 민주화와 노동기본권을 동시에 쟁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조직력을 키우고 과감한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이 과제들은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 투쟁은 강력한 국제적 연대전선을 필요로 한다.

응규루 리롬바(N. Lipumba, 핀란드 세계발전경제조사연구소 선임연구원)

세계경제체제해에서 선진국·후진국간의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며 국가간 불균형성장은 필연적이다. 그런데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외국자본에 의한 경제개발을 서아프리카 제국에게 권고했다. 몇몇 나라들은 고도성장을 달성하기도 했으며 80년대 이후 구조조정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국내 불균형성장으로 귀결되었으며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만을 높였다. 구조조정으로 노동자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실업은 증대하였다. 허부구조는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으며 인적자원의 개발은 무시되었고 제철기업을 겨느린 은행만이 높

은 이사로 이음을 축적하였다. 사회보장부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빈곤의 정도는 1일 1달러 소득에 불과한 빈곤층이 인구의 40~50%에 이를 정도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제 서아프리카 세국은 현재의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해외기관에 의존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을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노동조합 역할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진보적 지식인 그룹과 결합하여 정치적 진출을 서둘러야 한다. 선진국의 저대한 노조들은 다양한 세계화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후진국 노조들이 해쳐 나갈 길은 거의 없다.

토론내용

미국과 유럽에 대해 발표자간에 이루어진 상호 논평은 상황에 대한 설명만 다를 뿐 그 내용은 동일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세계화가 노조의 분권화와 노조 힘의 약화를 노리고 진행되고 있는 한 그 대응책은 강한 노조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일본대표는 해외투자확대로 인한 실업증가에 대한 대책이 노조의 과제라고 하면서 특히 일본의 경우 환율변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여 IMF가 국제경제기구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말레이시아 대표는 자유로운 헤고와 하청이나 파견근로와 같은 미국식의 새로운 고용위협이 등장하고 있는데 대해 그 대책이 무엇이라고 따졌고 모잠비크 대표

는 87년 이후 개시된 경제모델들은 노동사회성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이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개발 대안 특히 제3세계가 취해야 할 개발모델은 무엇인지 제시하려고 요구했다.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직업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역설한 캐나다 대표에 이어 독일 금속노조 대표는 취업정책의 결과 많은 노동력이 저임금상태의 서비스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취업정책이 실업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사람의 발언자는 1918년 이전 세계경제는 지금보다 더 개방적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기본문제는 세계화가 아니라 성장의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루돌프 루다는 구조조정은 낮은 많은 직종을 도태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게 될 것이므로 새 기술자를 훈련시키는 방안을 취업정책에 포함시켜야 하며 서비스분야 역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잠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세프 포우는 지금 최대의 문제는 노동조합의 '열의 결핍'이라고 강조하고 미국의 경우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공공부문 서비스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제3세계의 새로운 대안제시 요구에 대해서는 사회자에 의해 다음의 기조

발표자 몫으로 넘겨졌다.

아프리카 대표의 현재의 구조조정 이외의 다른 대안이 있는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용규부 리프바는 국가예산, 조세정책, 재정정책을 통해 개혁이 가능하며 정책의 우선순위로 예컨대 부채탕감, 허부구조 투자, 신용대출 확대 등을 들었다. 러시아 대표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현상 유지를 바라는 자본가들에 대해 IMF가 무능에 나선다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결의를 보였고 가나와 과부의 대표는 세계화는 그림자가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전략은 실제 적용가능한 융통성 있는 대안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도의 한 대표는 먼저 세계화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저개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성장의 성공은 착취의 성공이 아닌가라고 묻고 소수의 계층이 부를 독점하고 있으면서 기아, 영양실조, 실직, 빈곤, 무교육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최빈국의 경우 경제개발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토론은 무려 5시간이나 계속되었으나 선진국 노동조합과 개발도상국 노동조합이 각기 갖고 있는 고민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는 없었다. 그만큼 양측이 처한 상황은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이었다. 사회자는 세계전체를 상대로 하나의 아이디어나 전략으로 요약하기는 곤란하지만 오늘의 토론으로 '세계화'는 장미빛 꿈이 아니라 일그러지고 있는 초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

21세기를 향한 IMF 행동계획

1. 경제 사회적 배경

변화하는 세계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노동운동은 ① 공업국경제의 성숙화, ② 규제 완화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대두, ③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화, ④ 공산주의의 붕괴, ⑤ 국내의 빈곤과 불평등의 증가 및 국가간 빈부격차의 확대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역·국가·국제적 수준에서 사회적 비용을 무시하고 행해지고 있는 경쟁은 민영

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적 비용의 전반적 인화, 단체교섭의 분산화 등 노동자에 대한 거대한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소리가 아니라 돈을 대표하고 있는 시장능력주의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공산주의의 붕괴는 세계적 인 자본으로 하여금 노동자들이 정위한 진보적 사회·경제제도를 해체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무기자본은 짧은 시간안에 각국 금융시장을 넘나들면서 지역경제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파멸적인 결과를 초